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2.21(금) ~ 2025.2.27(목)

제공일시 2025 3 7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2.21(금) ~ 2025.2.27(목)

제공일시 2025 3 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트럼프 정부, 日·네덜란드에 中반도체 규제 강화 압박"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통제 강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일본·네덜란드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과 ASML 등 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함

- 블룸버그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통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연합뉴스 2025.2.25)

2. EU, 탄소국경세 대상 기업 대폭 면제 초안 공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에 적용되는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초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전함

- 이는 EU가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국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규제 완화 조치로 풀이됨. 초안에 의하면 최초 대상인 약 20만개 수입업체 중 상당수가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새롭게 밝혀진 초안에서는 연간 50톤(metric ton) 이상 수입하는 기업, 즉 질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또, 초안은 일부 규정의 단순화 계획도 담고 있음. 기업이 별도의 탄소국경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된 셈임

(임팩트온 2025.2.26)

3.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 국제 탄소거래소 개장… 한국 기업에도 기회

-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탄소거래소(IDX Carbon)를 공식 개장함. 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가 지난달 20일부터 탄소 크레딧 판매를 국제적으로 확대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로, 이를 활용해 탄소배출권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임

- 특히, 열대우림을 보존하며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는 '프리미엄 탄소 크레딧' 시장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더구루 2025.2.23)

국내 정책

1. 2기 탄녹위 출범… 9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UN 제출

-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공식 출범함

-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임

- 탄녹위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매개로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함

- 아울러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 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임

(디지털타임스 2025.2.24)

2. 정부, '국가대표 AI팀' 뽑는다… 데이터 규제도 완화

- 정부가 세계 최고 AI모델 개발을 목표로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키움.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에 대응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임

-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힘

- 먼저, 정부는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Top 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함

- 우수 AI 모델은 공공·민간 영역으로 활용을 확산하고, AI 연구자들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마련함. 또,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 범용 인공지능(AGI, 예타진행)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는 구상임

(MTN뉴스 2025.2.20)

3.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배출량 종합 컨설팅' 지원 시작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고 20일 밝힘

-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함

(중소기업신문 2025.2.20)

글로벌 기업

1. BP,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거두고 화석연료로 회귀

- 영국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목표를 철회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전략으로 회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함. 이는 투자자들의 수익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BP는 최근 몇 년간 경쟁사 대비 주가 부진을 겪어왔으며, 지난해 주가는 주요 석유 기업들에 비해 약 16% 하락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2.25)

2. 테슬라, 중국서 완전자율주행 달린다… 첨단 주행보조SW 'FSD' 곧 출시

- 테슬라가 중국에서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Full Self-Driving)'를 출시함.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테슬라 전기차 소유주에게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FSD를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힘

- 테슬라는 FSD가 운전자에게 차량 교차로 진입을 안내하고 신호등 인식, 회전, 차선·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임. FSD는 6만4000위안(약 8800달러·1261만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옵션으로 제공됨

(전자신문 2025.2.25)

3. 中 마이너 배터리도 유럽으로… CALB, 포르투갈 공장 설립

-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LB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포르투갈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공장(기가팩토리)을 건설함. CATL과 BYD 등 선두업체들의 전략을 답습해왔던 하위권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마저도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임

-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CALB는 최근 포르투갈 시네스에 연산 15GWh 규모의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2028년 가동을 목표로 20억9000만달러(약 3조원)를 투입할 예정임

- CALB가 포르투갈을 선택한 이유는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임

(디지털타임스 2025.2.25)

4. 폭스콘, 혼다에 전기차 협업 제안

- 일본 닛산자동차 경영 참여에 눈독을 들이던 대만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이 혼다에 협업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함. 닛케이는 폭스콘 관계자를 인용해, 폭스콘은 닛산이 지분을 보유한 미쓰비시자동차까지 더해 혼다, 닛산 등 4개사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폭스콘은 혼다, 닛산 등과 손을 잡으면 아시아권에서 강력한 EV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세계 시장의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경제 2025.2.22)

국내 기업

1. 현대건설, 美서 SMR-300 1호기 건설 착수… "글로벌 원전 시장 견인"

-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에 착수하며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

- 현대건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주 코버트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에서 홀텍과 함께 'Mission 2030'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힘

- 양사는 이날 확장 협력 합의서(Extended Team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공표함

- 합의서에는 300MW급 SMR로 원전 용량을 확대하는 개정 합의와 함께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사업 협력,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공동 조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김. 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으로 홀텍의 SMR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으로 확대함

(포인트데일리 2025.2.26)

2. LS일렉트릭, 삼성물산과 美합작사… 북미 전력 시장 공략

- LS일렉트릭은 최근 자사 북미 투자법인 LSE인베스트먼트 출자를 통해,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미국법인(이하 LLC)이 개발 중인 50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 '에너크레스트'를 설립했다고 26일 밝힘

- LS일렉트릭은 삼성물산의 미국 500㎿급 BESS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뉴스프리존 2025.2.26)

3. OCI홀딩스, 미 텍사스주에 260㎿ 태양광 발전소 개발

- OCI홀딩스는 미국 자회사 OCI 에너지가 이스라엘 태양광 회사 아라바 파워(Arava Power)와 선로퍼(Sun Roper) 프로젝트 합작법인(JV)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힘. 두 회사의 공동 투자로 2026년 말까지 프로젝트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 및 향후 매각에 따른 수익을 공유함

- OCI 에너지는 프로젝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허가, 금융 조달, 발전소 시공 등 노하우를 합작법인에 제공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5.2.24)

4. 포스코인터, 롯데케미칼 파키스탄과 전략적 협력 체결

-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이 화학 원료 공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케미칼 파키스탄(LCPL)은 지난 14일 파라자일렌과 아세트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음

- 롯데케미칼 파키스탄의 원료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뉴시스 2025.2.2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2.21(금) ~ 2025.2.27(목)

제공일시 2025 3 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인도, 10억달러 태양광 산업 보조금 검토… 中 의존도 낮추기

- 인도 정부가 태양광 제조업 육성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4335억원) 규모의 자본 보조금 계획을 최종 조율하고 있음.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임

-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신재생에너지부(MNRE)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는 웨이퍼와 잉곳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실의 핵심 참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향후 몇 개월 내 내각에 제출돼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신재생에너지부 대변인은 25일 "정부가 웨이퍼, 잉곳, 폴리실리콘의 국내 제조업체를 어떻게 지원할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된 안건은 없다"고 말했음

- 현재 인도는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음. 인도는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 역량을 확대해 왔지만, 웨이퍼와 잉곳 제조 부문은 아다니 엔터프라이즈(Adani Enterprises)가 구축한 2GW 규모의 시설만 운영되고 있음.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인도의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은 71GW, 셀 생산능력은 11GW 수준임

- 태양광 산업에서는 물류와 품질 관리 문제가 웨이퍼와 잉곳 제조 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번 보조금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음

- 그러나 인도가 웨이퍼와 잉곳 생산 능력을 확대하더라도, 그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여전히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폴리실리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중국은 연간 230만톤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2위 국가인 독일의 7만5000톤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는 수준임

- 인도 정부는 현재 217GW 수준인 비화석연료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500GW로 늘릴 계획임. 태양광 산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부에 따르면, 인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태양광 24.5GW를 추가로 설치하며, 전년 대비 태양광 설치량이 2배 이상 증가했음

- 이 중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는 18.5GW가 신규 설치되며 2023년 대비 약 2.8배 증가했음. 루프탑 태양광도 4.59GW가 추가되며 전년 대비 53% 확대됐고, 오프그리드(Off-grid) 태양광 부문도 182% 증가하며 1.48GW가 추가돼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

(임팩트온 2025.2.26)